

나비박사 石宙明

日帝때 開城서 나비 60만마리 표본제작

朴星來 <한국외대 인문대학장 / 과학사>

평양태생 ... 일본서 유학

요즘 다시 가짜 박사가 말썽이 된 일이 있다. 그런데 아마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이 땅에서 가장 이름난 과학자로 꼽히는 인물은 아무래도 석주명(石宙明, 1908-1950)이 첫 손가락에 꼽혀야 마땅할 것이다. 식민지시대에서야 겨우 시작된 근대과학의 여러 분야...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물학분야에서 탁월한 공을 남긴 석주명은 흔히 '나비박사'로 불리운다. 박사학위를 받은 일 없는 '나비박사' 석주명은 일제하에서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과학자의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석주명은 1908년 11월13일 평양에서 아버지 석승단과 어머니 김기석의 3남매 가운데 첫째로 태어났다.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석주명은 일본에 건너가 가고시마(魔兒島) 고등농림학교 농학과를 29년 졸업하고 귀국해서는 15년 동안 모교인 송도고보의

교사로 근무했다.

그가 한국 생물학의 개척자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바로 이 동안의 활약 때문이었다. 특히 석주명은 부임 첫해에 이미 송도고보에 많은 나비를 채집해 전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1929년 겨울에 벌써 남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그의 활동은 외국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나비연구에 관한 한 그가 세계학계에 그 대표자로 알려졌던 것이다. 몽고지방의 탐사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던 모리산 이름의 미국의 지질학자가 우연히 그의 나비 표본을 구경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말로는 개성(開城)은 '가이조'였고 서울은 경성(京城)이어서 '케이조'였다. 우리말을 모르는 미국인에게 '가이조'가 '케이조'라 들렸던 것은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잘못 알아들은 실수로 개성역에 내린 모리스는 할 일 없이 다음 기차시간을 기다리며 우연히 송도고보를 들렀던 것이다.

英학회서 연구비 받아

모리스의 격려에 힘을 얻은 석주명은 다음해부터 미국의 박물관과 동물표본의 교환을 시작했다. 이어 33년부터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비교동물학과장의 도움을 받아 다른 서양학자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으로 서양에 그의 업적이 알려지자 41년 영국왕립학회는 그에게 연구비를 제공하며 한국나비 목록 작성을 부탁하기도 했다. 석주명은 이제 틀림없이 '나비박사'가 된 것이었다. 그는 이 연구를 위해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에 파문혀 영문판 한국나비 목록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한국의 나비연구는 이런 정도에서 대강 끝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한참 공부에 열성이었고 또 그럴 수 있었던 22살 때인 29년에 미국 과학자의 자극을 받았던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자극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몇년 동안 열을 올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을 것이 아닐까?

표본 불태우고 제주로

그러나 10년쯤 열심히 뛰던 그의 나비연구 활동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들기 시작했다. 43년 그는 제2의 고향 개성을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그는 개성을 떠날 때 그가 수집했던 60만마리 이상의 나비표본 등을 송도고보 운동장에서 불태웠다고 전한다. 제주도에 있는 당시 경성제대 생약(生藥)연구소가

1929년 松都高普 교사부임...15년간 채집

있었고 그는 바로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제주도에서의 석주명은 이미 나비연구의 과학자가 아니었다. 영동하계도 그는 언어학연구에 열성을 보여 제주도 방언을 채집하여 책으로 냈는가 하면 제주도의 옛 문헌을 조사해서 역시 책으로 냈다. 그는 또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의 초창기 대표적 인물로 꼽힐만큼 언어학에도 재주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석주명이 왜 에스페란토에 열성이었고 또 제주도 방언연구로 방향을 돌렸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해방은 석주명을 다시 서울로 보냈다. 잠시 농사시험장의 병리곤충부장이란 자리에 있던 그는 곧 이듬해 국립과학관의 연구원장으로 옮겼다. 아직 30대 후반의 젊은 석주명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개성 시절과 같이 한가하게 연구에 매달릴 여건은 사라진 채였던 것 같다. 2차대전 중에도 그랬지만 해방직후 몇년 동안의 국내 정세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암울하기 짝이 없는 혼란기였기 때문이다.

6.25동란중 희생

이런 가운데 50년대에는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군이 다시 서울을 찾은 50년 9월28일에서 일주일쯤 뒤 그가 근무하던 국립과학관에 불이 났다. 석주명은 표본을 구하려고 불에 뛰어들었다가 끝내 숨졌다고도 전한다.

다른 소문으로는 그는 적의 총을 맞

아 희생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그해 10월4일의 일이었다.

어떤 경우였건 그의 죽음은 비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며 가정적으로도 그리 행복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서재를 안에서 잠가두고 밖에는 초인종을 달아두어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종을 눌러 사람을 불렀다고 전한다. 혹시 너무 연구에만 몰두하여 그랬던 것일까? 하기는 그는 “시간을 아껴써야 한다”, “조각난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공부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이런 태도와 관계있는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蝶類연구사」 남거

석주명은 1920년부터 43년 사이에 활약하고 그후에는 혼란기의 고생을 이기지 못한채 사라져 간 것으로 보인다. 1908년에 태어나서 50년에 세상을 떴으니 만 42년의 생애 동안 그는 21살부터 34살까지 우리나라 나비의 조사연구로 세계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겠다. 그는 「한국접류(韓國蝶類)의 연구사(研究史)」라는 그의 글에서 나비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대 동물학을 이렇게 시대구분한 일이 있다.

- (1) 제1기(1882-1901)···서양인이 탐험조사한 기록의 시기
- (2) 제2기(1905-1929)···일본 학자들이 주로 활약한 시기
- (3) 제3기(1929-1939)···한국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

(4) 제4기(1940년 이후)···이 시기에 들어 나비 연구는 정리되기 시작한다.

그가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실제로 30년 이후에서야 한국인 생물학자들은 활약을 시작했다. 11년에 이미 정태현(鄭台鉉)은 식물채집을 시작했다지만, 그밖에 석주명, 조복성(趙福成), 이덕봉(李德鳳) 등이 30년대에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조선박물학회 또는 조선박물교원회 등을 만들어 함께 활동했는데, 아직 생물학(生物學)이란 표현보다는 박물학(博物學)이란 말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생물학은 19세기까지의 모습 그대로 박물학으로 남아 있던 시절이었다. 즉 생물을 채집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종(種)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중심되는 그런 생물학이었다. 지금 생물분류학이라 부르는 그런 분야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석주명의 생물학은 이런 뜻에서는 지금의 생물학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서양에서도 이런 박물학 단계를 거쳐 발달해 왔다. 찰스 다윈이라면 진화론을 주장하여 세계 과학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생물학자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가 한 일도 거의 박물학자로서의 일이었다.

나비만을 관찰하고 채집한 석주명이 그런 큰 이론적 업적을 낳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30년대에 이룩했던 업적은 당시 한국인이 이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SY

美박물관과 표본 교환...해방후 과학관 근무